

서울의 南大門

申 榮 勳 —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1.

1907년 8월 초하루, 舊韓國軍隊의 해산령이 내렸다. 侍衛第1聯隊의 第1大隊와 第2聯隊 第1大隊 소속의 군인들이 이에 항거하여 남대문 북쪽의 성벽을 의지하고 일본군대와 대치하며 市街戰을 벌였다. 일본군대는 남대문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응사하였다. 이 전투에서 남대문이 피해를 입었는지의 기록은 없다. 그러나 총격전이 벌어진 바에는 총알이 날아들었을 터이므로 피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옳겠다.

1907년에 통감부의 일본인들은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성벽의 절단이 요망된다는 핑계로 남대문 좌우의 성벽을 허물었다. 지금처럼 길 복판에 외롭게 남게되는 모습이 이때로부터 비롯된다.

이보다 앞서 南大門通을 지나는 電車가 南大門驛으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전차길이 홍예문을 통과하도록 부설하였다.

남대문의 큼직한 문짝을 받아주던, 장대석으로 설치하였던 문지방돌이 이때에 제거되고 말았다.

南大門驛에서 바라다 보면 南大門은 언덕 위에 있다. 초기의 작은 전차는 까들거리며 이 언덕을 올라가 홍예문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전차가 울리는 진동은 南大門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후대에 전차궤도는 남대문 북쪽으로 우회하도록 부설된다. 그러나 이때에 다니기 시작한 대형전차가 일으키는 진동, 특히 정차장에 멈추고 출발하는 데에서 오는 진동이 역시 남대문에 누적되는 피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정적인 치명타는 6.25 때 있었다. 거침없이 날아든 각종 총포탄으

로 홍예문을 연 육축(陸築: 높직하게 대를 모으고 門樓를 세우게 한 구조물)과 초루(譙樓: 육축 위에 지은 木造의 建物. 門樓라고도 함)는 심한 상처를 입었고 지붕의 기와는 깨어지고 벗겨졌다. 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화필름을 보면 당시의 처참하였던 모습은 참으로 애처러웠다.

수복하자 서울시는 응급처치라도 해서 이 애처로운 모습을 씻으려 하였다. 그 공사는 1952년 11월에 착공되었다. 137,875圓의 공사비로 시공하였다. 「南大門災害復舊工事」라는 문자 그대로의 응급수리공사였다.

1954년 8월부터 12월 중순까지 世宗路의 紀念碑閣과 함께 丹青工事を 하였다. 慶國寺의 住持 金普現에게 위촉하여 실시하였는데 남대문 단청의 공사비는 1,800,620圓이었다. 그러나 丹青만으로 남대문의 수명이 회생될 수는 없었다.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1961년 7월에 「서울市 南大門重修工事指導委員會」가 조직되었다. 서울시 文化財保存委員會에서 4명,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1명,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되고 著名人士 다섯분이 顧問으로 추대되었다.

남대문의 중수공사는 1945년 광복 이래의 문화재보수 첫사업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이어서 관심이 있는 사람도 많았고 일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터무니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人士도 있어 처음부터 이 공사는 말이 많았다. 그래서 1962년 3월에는 「重修工事事務所」의 직제가 개편되고 관계자들을 정비하여 실제 시공에 임하였었다. 그리고 1963년 5월에는 공사가 준공되었는데 그 중요

공정의 시기는 다음과 같았다.

- 外部實測 : 1961. 8. 1 ~ 1962. 11. 28.
- 建物解體 : 1962. 1. 16 ~ 1962. 2. 20.
- 石築解體 : 1962. 2. 21 ~ 1962. 5. 10.
- 施工圖作成 : 1962. 2. 1 ~ 1962. 5. 30.
- 木材搬入 : 1962. 12. 16 ~ 1962. 12. 30.
- 治材作業 : 1962. 5. 5 ~ 1962. 10. 20.
- 陸築再建 : 1962. 5. 15 ~ 1962. 9. 30.
- 譙樓再建 : 1962. 10. 30 ~ 1963. 3. 30.
- 丹青工事 : 1963. 3. 21 ~ 1963. 5. 2.
- 周邊整理 : 1963. 4. 20 ~ 1963. 5. 13.

※ 本工事費總額 19,371,040원

부대비 911,882원

工事費는 화폐개혁 직후이어서 그 금액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建物實測을 위하여 各工科大学 建築科에서 추천한 2명씩의 학생들이 南大門國民學校의 교실을 빌어 작업을 하였다. 이런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이고, 여기에 관여하였던 당시의 학생 중에는 지금도 이 방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제 관계하였던 당시의 人士들 중엔 他界人이 많다.

2.

나는 육축부분을 해체하는 일의 책임을 맡았었다. 당시의 직함은 현장

감독이다. 그때의 문교부에서는, 문화재보수의 경우는 가장 적절하다고 추천되는 사람을 초빙하여 감독관으로 상주하도록 발령하는 제도를 따르고 있어서 楊澈洙·金正基兩氏와 더불어 나도 감독관에 위촉되었던 것이다. 육축해체는 관리사무소의 직영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목부구조 해체작업을 도급주어 趙元載氏가 맡아 하면서 學術的인 조사에 소홀하였다는 輿論이 크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학술적인 조사를 겸행하는 직영체제를 택하였던 것이다.

육축의 해체에는 精密實測이 따랐다. 해체하면서 드러나는 모습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기록하고 해체되는 部材들에 一連番號를 부여하여서 재사용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실측에는 崔容完氏팀이 관여하였다. 실측팀은 製圖室이라 하여서 解體前實測으로 부터 관여하던 各大學에서 派遣되어 온 건축과 학생 중의 일부가 잔류하는 조직으로 운영되며 공사관리사무소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도록 되었다.

육축에 사용된 武砂石(장대석보다 운두가 높고 큰 돌. 성벽·석축 쌓는 데 쓰이는 석재)은 표면에 전모를 나타내어 길쭉한 것도 그 규모가 커서 아랫도리에 있는 것은 100톤에 가깝지만 밖으로는 작은 면적의 머리만 내밀었으면서도 뒤로 길쭉하게 뻗어 積心の 役割과 柱礎의 荷重을 떠받게 된 돌은 2백톤 가까운 것들도 있다. 이것의 해체와 해체하여 地上에 내린 것을 일정한 장소로 옮기는 小運搬 일도 쉬운 것은 아니었다. 목뚝군들도 동원되었는데 그 중에는 60객의 영감님들도 섞여 있었다. 그 중의 한 노인은 鐵橋 놓는 일에도 종사한 바 있었다는 본인데 어떻게나 기운이 좋은지 웬만한 壯年の 일꾼들도 그의 힘을 당하지는 못하였다. 이 분이 포함된 목뚝군반은 남들보다 능률이 2배나 올라서 내 기억으로는 특별 수당이 지급되었던 것 같은데 이들도 책임자인 金千石씨에게는 경의를 표하였다. 金千石氏는 지금은 他界한 본인데 생김새가 天王像 같고 얼굴은 마마손이 없어 지렛대 들고 버티고 서면 활일 없는 四天王像이라, 별명이 곰보·천왕동이였다. 큰 돌을 운반하거나 쌓거나 부리

는데 독보적인 기량을 지녀 生前에 수많은 塔과 성벽을 고쳤다. 그러는 중에도 사람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와 얽힌 이야기는 그래서 많고 또 인간적인 秘話도 많은 분이였다.

金七星이란 분도 대장쟁이로 참여하였다. 돌 다듬는 정·망치는 물론이고 집에 쓰일 鮮釘(대장간에서 만드는 각종 쇠못들. 긴 것은 2尺이 넘는 것도 있음) 등도 그의 손에서 다 만들어졌다.

이 두분이 육축해체와 쌓는 일에 쓰일 기구 하나를 고안하였다. 일터가 좁아서 큰 돌을 운반하거나 돌리거나 바꾸거나 하는데 쇠동아줄을 걸어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사용될 돌 정수리에 네모진 구멍을 파고 거기에 쇠를 넣어 꼭 물리게 하고 그 쇠에 달린 고리에 거중기(舉重機.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기중기의 한가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림)의 끈을 걸어 올리게 하여서 좁은 곳에서도 자유자재로 돌을 돌려가면서 제자리에 찾아 놓을 수 있게 하였다. 간편하지만 막상 생각해 내려면 까다로운 그런 구조물이다.

육축과는 관계없는 기능공이지만 林培根·朴琪燮·趙元載·李光奎라는 都大木級 목수들과 奇善吉이라고 하는 기와쟁이가 인상적인 분들이였다. 이분들은 다 他界하였고 李光奎氏만 生存하는데 국가에서 人間文化財로 指定하여 후배양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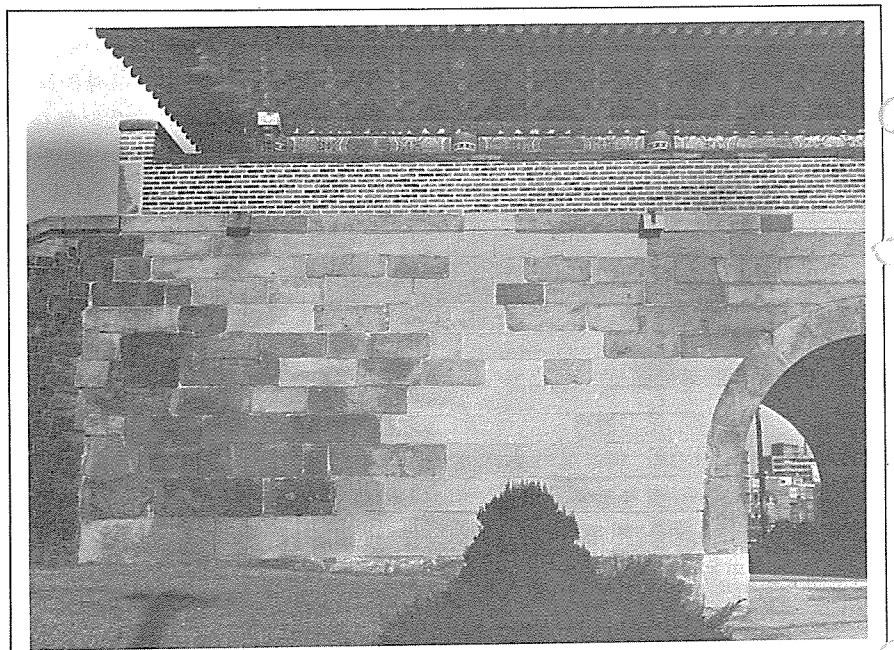
楊澈洙氏라는 監督官도 역시 돌아가셨다. 初期 우리나라 建築界에 공헌하던 분들이다. 반면에 현장소장을 지낸, 崔某라는 터무니 없는 사람이 있어서 工役期中 빈축을 사고 영망으로 만들었었다.

3.

서울의 南大門은 수도의 正門으로 위엄을 갖추었다. 本名이 崇禮門인 이 大門은 지금의 서울역 부근에 있던 南池에서 퍼낸 흙으로 골짜기 사이를 메꾸어 육축하고 축조한 건물이다. 이런 공사는 世宗30年(1448年. 解體時 도리와 장혀에서 墨書한 上樑文과 重修記가 발견된 바 있음)에 시행되었는데 태조 5년(1396)에 처음 축조될 때에는 골짜기 문만 세우는 작업을 하였고 성벽도 토성이 태반이였다.

지금의 도꾸호텔에서 내려오는 언덕과 남산국민학교로 이어지는 地形은 능선에 따라 경사져 있는데 世宗 때에 상당한 土量으로 築土하기 이전까지는 남대문이 서있는 자리는 깊은 골짜기에 해당하는 곳이였다. 여기를 메꾸어 쌓으므로 해서 서울역에서 남대문으로 가는 길이 경사를 이루게 되었다.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태조 때의 남대문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敦化門처럼 홍예문이 있는 陸築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世宗 때 重建하는데, 王朝實錄에서는 이때의 공사를 가리켜



1962년도 重修時. 6. 25 때 파괴된 石材를 新材로 교체한 광경(남쪽의 北便壁)

「新作崇禮門」이라고 할 정도였다. 육축하고 2층의 초루를 짓는 작업이 이때에 완성되었던 것이다.

成宗 10年(1479)에 남대문이 重修된다. 世宗이 1448년에 지은지 32년만의 큰 수리공사인데 32년만에 重修한다는 일은 너무 기간이 단축하다. “왕조실록”에는 성종과 신하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듯이 기록되어 있다. 신하들은 “약간 기울어 보이다”고 주장한 반면에 성종은 “많이 기울어졌다”고 하였다. 결국 해체수리가 감행되는데 실제 어떤 결함이 있어 중수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성종 이래로 수리한 기록이 없다. 梨大史學科 출신의 具熙書氏에게 위촉하여「서울南大門修理報告書」(1965年刊)를 편집할 때 ‘왕조실록’을 전부 통과하면서 남대문에 관계된 기록을 발췌하였으나 그후의 보수된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62년도 중수시에 조사된 바로는 壬辰倭亂 때 燒失되지 않았고, 또 그 후로 큰 사업은 없었더라도 부분부분의 보완공사는 거듭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중에 남대문 모습을 크게 바꾼 사건도 있었던 것 같으나 어느 시기였는지는 알 수 없다.

원래 남대문의 지붕은 팔작지붕이었다. 팔작지붕은 지붕 좌우 마구리에, 벼개에 벼개모를 부치듯이 합각이라고 하는 三角狀을 구성시키는 지붕이며, 보통 중심이 되는 건물의 지붕은 팔작이어서 근정전이나 창덕궁의 인정전 등이 모두 이 유형의 지붕이다. 그렇던 것이 지금의 남대문 지붕처럼 우진각지붕이 되었다. 팔작지붕의 三角狀 합각이 없어지면서 용마루가 추녀마루로 계속되는 형태의 지붕이다. 마치 초가지붕 모습에 방불하다.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조사되었다. 팔작지붕으로 구성하였던 원래의 구조물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채 후대에 우진각지붕으로 변조하였음이 뚜렷이 드러나 보인다.

언제인가, 창덕궁의 敦化門, 창경궁의 弘化門, 덕수궁의 大漢門처럼 궁

성의 중요 大門들이 우진각지붕으로 통일 될 때 이 崇禮門 지붕도 우진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 같다.

남대문의 構造上的 특징은 2層을 구성하기 위하여 귀고주(隅高柱)를 둔 점이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볼 수 있는 법식이다. 양식상으로 남대문은 多包系の 공포양식을 지녔다고 말한다. 다포계는 柱心包系の 공포양식과 兩大別되는 양식인데 柱心包系가 朝鮮朝前期以前에 主流를 이루던 양식이라고 한다면 多包系는 高麗末로 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 역대에 걸쳐 조영되었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심포계의 공포는 기둥 위에만 구성되는데 비하여 다포계의 공포는 기둥 사이의 간격에도 나란히 구조된다. 그래서 包가 많다(多)는 의미에서 多包系란 낱말이 造語되었는데 조선조의 원래의 말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주심포계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게 되므로 기둥 위에 柱頭를 놓아 공포를 받게되면 그만이 아니라 다포계에서는 柱間에도 공포를 배열시키므로 해서 그것의 荷重을 지탱할 平枋이란 부재를 하나 더 사용한다. 남대문은 다포계의 이런 특징적 구조물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남대문은 上下 2層을 모두 사용하게 구조되어 있다. 경복궁의 근정전 등이 바깥은 이중이면서 안에서 올려다 보면 通層이 되어 천장이 까맣게 올려다 보이는 구조와는 다르다.

아래층엔 중앙간에만 마루를 깔았다. 나머지간은 맨바닥이다. 軍士들이 굽히 뛰어다니는 데는 맨바닥이 유리하다. 가운데간에 마루를 깔 것은 守禦將帥가 坐定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조상으로는 흥에 윗부분의 덮개마루가 채택되어 무난한 마감을 하였던 것이다.

2層으로 올라가는 사다리(層橋機, 층층다리틀)는 두곳에 설치되었다. 2層의 바닥은 나무판자를 깔 마루인데 집의 大廳에서처럼 우물마루를 구성

하지 않고 장마루를 깔았다.

2層의 천장은 연등이다. 연등천장은 서까래몸이 드러나 보이도록 꾸민 것인데 서까래 사이 간격에는 판자로 蓋板덮고 하얗게 密陀僧(아연화에 유사한 안료)을 발랐다.

남대문의 처마는 겹처마이다. 서까래만으로 구성되는 처마를 홑처마라 하고 부연을 덧댄 처마를 겹처마라 부르는데 처마의 곡선을 위하여는 서까래 다듬는 일에서 부터 계산이 시작된다. 처마곡선은 위로 끝이 들리는 곡선과 끝에서 안으로 휘어지는 안허리곡선의 두가지가 있어 그것이 복합되어진 線으로 우리들 눈에 뜨이게 마련인데, 이런 선이 이루어 지려면은 여러가지 부재와 치밀한 계산이 있어야 한다. 추녀, 사래, 선자서까래, 갈모산방, 통서까래(이 경우엔 曲椽)와 평고대의 부재가 준비되면 추녀의 曲을 얼마큼 잡느냐, 처마의 깊이를 기둥의 높이에 비하여 얼마로 설정하느냐, 추녀앞머리의 각도에 따른 軌跡의 산출 기초수를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 등에 따라 치밀한 계산이 이행되고, 그 계산에 부합되도록 治木되고 結構된다. 그 결과가 처마곡선이 되는 것이다.

버선코와 저고리 소매곡선에 흔히 비유한다. 처마곡선이 그런 곡률을 지녔다는 것이나, 어쩌서 그렇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이는 걸맞지 않은 비유이다. 오히려 한옥의 지붕과 처마곡선은 背景이 되는 山의 山勢나 山形과 많이 닮았다.

天然스러움을 으름으로 치던 우리네 先人들은 그런 눈을 지니고 살았던 것이다. 山이 내 집과 같고 내 집이 山에 함께 함이 당연하다는 생각이었다. 지금 南大門은 背景을 四方에서 다 잃고 있어 山勢와의 相似를 볼 수 없게 되었으나 옛날의 사진을 보면 나즈막한 기와지붕 넘어 솟아 있는 南山·仁旺山·北漢山·北岳山들이 남대문과 닮은 山形을 돋보이며 우뚝거리고 있었다. 한가닥 맑은 구름이 흐르는 한적한 山이었다. (*)